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내 학술논문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Domestic Academic Papers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정경옥*

Kyung-ok Jeong*

Researcher, Depart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major, University of Soongsil, Seou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ung-ok Jeong, jeongko@ssu.ac.k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esearch direction of serious disaster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and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the research field related to ‘critical disasters’ in academic research published in Korea. **Method:** In order to analyze research trends, 147 final papers were selected among the papers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he ‘Critical Accident Punishment Act’ in domestic academic papers published from 2020 to the end of September 2024. The final selected literatur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by year, number of researchers, paper publication,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content. **Result:** First, 57 papers were published as for trends by year, and the most active research was conducted in 2022. Second, the trend by paper publication was the most, with 7 articles included in the ‘Labor Law Arguments’. Third, researchers had the most single-person studies with a total of 95. Fourth,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more used as a research method. Fifth, in terms of trends by research content, research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was conducted more actively than research on serious civil accidents. **Conclusion:** From 2020 to September 30, 2024,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basic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related research can be provided.

Keyword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erious Accid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 Serious Civil Accident, Research Trend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학술 연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연구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대재해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에서 2024년 9월말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 중 최종 논문 147편을 선별하였다. 최종 선정한 문헌을 연구시기별, 논문계재지별, 연구자 수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도별 동향은 57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022년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논문계재지별 동향은 ‘노동법논총’이 7편이 수록되어 가장 많았다. 셋째, 연구자는 1인 연구가 총 95편으로 가장 많았다. 넷째, 연구방법은 내용분석법을 활용한 질적연구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다섯째, 연구내용별 동향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연구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연구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결론:** 2020년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연구동향

Received | 21 October, 2024

Revised | 26 November, 2024

Accepted | 27 November, 2024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서론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의 화재사고, 2021년 광주 재개발지역 공사 현장 건물 붕괴사고 등 현장의 산업재해와 2011년 가슴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기관장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올해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 유예를 주장하였으나, 유예기간 연기에 관한 여야 간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여(Choung, 2024) 별다른 대책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2024년 8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 신고가 내려진 사건은 총 18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중 최고형은 15호 사건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의 실행,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원이 선고되었다(울산지방법원 판결선고자료, 2024.4.4). 아울러 최저형은 12호 사건인데, 경영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선고자료, 2023.12.21). 지금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가 미비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2024년 5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시행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466개사 대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준비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77%이고, ‘완료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23%였다.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준비’는 47%, ‘의무사항이 많고 복잡’은 36%, ‘의무내용이 불명확’이 12%, ‘준비기간 부족’이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현장은 아직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 584건으로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2022년(사망자 644명, 발생건수 611건)과 비교할 때 46명(7.1%), 27건(4.4%)이 줄어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18건까지 판결이 되었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단 1건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된 사건은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이다. 정자교의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다. 관련 공무원들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시 말해, 2022년 9월에 분당구 교량 보수 공사비 추경 요청을 승인했고,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을 승인했던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예방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Table 1. Trends by current status of death accidents subject to disaster investigation

구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합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소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소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소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사망자수 (명)	2022년	644	388	256	341	226	115	171	82	89	132	80	52
	2023년	598	354	244	33	181	122	170	96	74	125	77	48
	증감	△46	△34	△12	△38	△45	+7	△1	+1+144	△15	△7	△3	△4
	증감율	△7.1	△8.8	△4.7	△11.1	△19.9	+6.1	△0.6	+17.1	△16.9	△5.3	△3.8	△7.7
사망사고 건수 (건)	2022년	611	381	230	328	224	104	163	82	81	120	75	45
	2023년	584	345	239	297	178	119	165	92	73	122	75	47
	증감	△27	△36	+9	△31	△46	+15	+2	+10	△8	+2	0	+2
	증감율	△4.4	△9.4	+3.9	△9.5	△20.5	+14.4	+1.2	+12.2	△9.9	+1.7	0.0	+4.4

이후 현재 중대시민재해 1호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이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천 제방이 터져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건너던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제방을 쌓을 때는 환경부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높이와 폭을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데, 제방의 높이가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정황이 발견되었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가교가 미호천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미호천교의 확장 공사는 원래 2022년 1월에 완료했어야 하는데 설계가 변경되면서 완공일자가 2023년 8월로 한 차례 늦춰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자재 값 상승으로 완공일자를 11월로 한 차례 더 늦췄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임시 제방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소방관·경찰관 등 사고 관련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결론이 나지 않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법 시행 전후로 발표되었던 연구 특성과 추이를 분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의 전체 구조를 재조망하고자 한다 (Park et al., 2024).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최근 2024년(9월 30일 기준)까지 발표된 국내 ‘중대재해’와 관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구시기, 논문게재지,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의 연구시기별 발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의 논문게재지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의 연구자 수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

연구 분석 대상 선정기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먼저 주요 키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선정하였다. 키워드를 ‘중대재해처벌법’로 하였을 때, 2024년 9월 30일 검색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는 학술논문 433편이 검색되었다.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다시 하였다. 키워드 검색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213편이 검색되었고, ‘중대재해’는 386편, ‘중대산업재해’는 121편, ‘중대시민재해’는 19편이 검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키워드 검색으로 도출된 학술논문 제목과 핵심 키워드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논문 제목이나 핵심 키워드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단어를 포함한 논문을 기준으로 논문의 주제나 내용이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최근 2024년 9월 30일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 중 최종 147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연구동향 분석 관련 연구가 없기에 타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에서 사용한 틀을 활용하였다(Baek et al., 2021). 연구동향 분석 관련 선행 연구(Kang, 2015; Lee, 2020; Yun, 2021, Park et al., 2024)를 참조하여 연구시기, 논문게재지, 연구자 수, 연구방법, 연구내용별로 구체적인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법의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는 분석 대상 학술지 내용으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연구주제, 이론적인 관점, 연구방법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Lee et al., 2011). 반복되는 단어나 주제를 탐색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내용분석법은 질적 데이터의 축소, 핵심 의미를 찾는 데 활용된다(Patton, 2002). 그리고 분류 과정에서 복수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물은 연구동향 분석의 특성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중복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고, 빈도분석 시에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시기별 동향

최근 2024년까지 발표된 중대재해 관련 연구 관련 분석대상 국내 학술지 147편의 연구시기별 게재 동향은 Table 2와 같다. 2020년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시기별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발표 편수는 2020년은 3편, 2021년은 19편, 2022년은 57편, 2023년은 47편, 2024년(9월 30일 기준)은 21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에 관련 연구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Table 2. Trends by year of presentation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편수(편)	3	19	57	47	21	147
비율(%)	2.04	12.93	38.78	31.97	14.29	100

논문게재지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47편의 논문이 주로 어떠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게재된 학술지명을 조사하였다. 모든 학술지명을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여 3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16개 학회에서 다음 Table 3과 같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높은 편수를 게재한 학술지명은 ‘노동법논총’에 7편, ‘안전문화연구’에는 6편,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는 6편이 각각 게재되었다.

Table 3. Trends by paper publication

게재지명	발표년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동법논총	-	1	2	3	1	7	
안전문화연구	-	-	4	1	1	6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4	2	-	6	
노동법포럼	1	1	1	2	-	5	
법학연구	-	-	3	2	-	5	
노동법연구	-	3	2	-	-	4	
노동법학	-	-	2	-	2	4	
법과기업연구	-	2	2	-	-	4	
형사법의 신동향	-	-	3	1	-	4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1	1	1	3	
법률실무연구	-	1	-	1	1	3	
사회법연구	-	-	2	1	-	3	
아주법학	-	-	-	2	1	3	
토지공법연구	-	-	2	-	1	3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1	2	-	-	3	
한국안전학회지	-	-	1	1	1	3	

연구자 수별 동향

연구자 수에 따른 동향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1인 연구는 총 95편(64.63%), 2인 연구는 총 32편(21.77%), 3인은 8편(5.44%), 4인 연구는 9편(6.12%), 5인 이상 연구는 총 3편(2.04%)으로 조사되어 1인 연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도별 연구동향에서 연결하여 보면 2022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시기에 1인 연구자가 많은 편수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Trends by number of researchers

연도별						단위 :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2020	3	-	-	-	-	3 (2.04%)
2021	16	2	1	-	-	19 (12.93%)
2022	38	10	3	4	2	57 (38.78%)
2023	27	14	3	3	-	47 (31.97%)
2024	11	6	1	2	1	21 (14.29%)
합계	95 (64.63%)	32 (21.77%)	8 (5.44%)	9 (6.12%)	3 (2.04%)	147 (100%)

연구방법별 동향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내용분석, 사례연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116편(78.91%)이었고,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한 양적연구는 26편(17.69%), 혼합연구는 5편(3.40%)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가 4배가 넘었다. 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문헌조사 등의 내용분석 방법을 더 많이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 Trends by type of research method

연구방법						단위 :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질적연구	3	18	43	35	17	116 (78.91%)
양적연구	-	1	11	10	4	26 (17.69%)
혼합연구	-	-	3	2	-	5 (3.40%)
합계	3 (2.04%)	19 (12.93%)	57 (38.78%)	47 (31.97%)	21 (14.29%)	147 (100%)

연구내용별 동향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147편 논문의 핵심용어를 정리하였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Table 6과

Table 6. Trends by research keyword

핵심용어	빈도	유효퍼센트(%)	핵심용어	빈도	유효퍼센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4	36.5	안전보건관리체계	10	2.9
산업안전보건법	45	13.2	기업(법인)과실치사법	10	2.9
중대재해	28	8.2	명확성 원칙(명확성)	8	2.4
중대산업재해	23	6.8	징벌적 손해배상	6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21	6.2	안전보건 조치의무	6	1.8
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	16	4.7	양벌규정	5	1.5
산업재해	15	4.4	안전의식	4	1.2
경영책임자등(경영책임자)	15	4.4	안전사고	4	1.2

같이 빈도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들의 핵심용어는 총 777개로, 사용한 핵심용어가 많아 4번 이상 언급한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통계를 시행하였다. 가장 많이 포함한 단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총 124번 언급되었다. 그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45번, ‘중대재해’가 28번, ‘중대산업재해’가 23번 언급되었다.

핵심용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논문이 주를 이루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중대시민재해는 16번 언급되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구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대산업재해는 2024년 8월말 현재, 18호까지 판결이 완료되었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1호가 나오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이론적 배경을 찾기 어려운 점도 반영되었으리라 판단한다.

결론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총 147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별, 논문게재지별, 연구자 수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동향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는 2020년 3편, 2021년 19편, 2022년 57편, 2023년 47편, 2024년(9월30일 기준) 21편이 발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가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2022년과 2023년에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둘째, 논문게재지별 연구동향을 보면, 학술지명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3편 이상 게재된 학회지를 정리하였다. 총 16개 학회에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편수를 게재한 학술지명은 ‘노동법논총’에 7편, ‘안전문화연구’에 6편,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는 6편이 각각 게재되었다.

셋째, 연구자 수별 연구동향을 보면 1인 연구자 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인 연구자는 95편, 2인은 32편, 3인은 8편, 4인은 9편, 5인 이상은 3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1인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2022년과 2023년에 가장 많았다.

넷째, 연구방법별 동향에서는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양적연구방법과 내용분석, 사례연구의 질적연구방법, 그리고 혼합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별 동향은 질적연구는 116편, 양적연구는 26편, 혼합연구는 5편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 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문헌조사 등의 내용분석 방법을 더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연구내용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핵심용어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147편 논문의 핵심용어는 총 777개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총 124회 언급되었다. 그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45번, ‘중대재해’가 28번, ‘중대산업재해’가 23번 언급되었다. 핵심용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가 많지 않은 점도 반영되었으리라 판단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 초기부터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적용 유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하는 사항을 두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Choung, 2024).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 사업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연구가 추가로 활발히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3항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의 조항에 ‘발생원인’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중대시민재해’라 할 수 없다. 한 예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발생장소가 골목, 길거리여서 공중이용시설도 공중교통수단도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문 147편을 분석하여 연구시기별, 논문게재지별, 연구자 수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련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모든 연구를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Kim et al., 2022; Nam et al., 2023). 따라서, 향후 학위논문이나 국외 연구까지 확장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간의 분석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Lee et al., 2024). 이러한 한계점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Back, J.-B., Kwon, Y.-S. (2021). “Analysis of domestic heatwave research trend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7, No. 4, pp. 755-768.
- [2] Choi, B.-O. (200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del of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Chung, W. (2024).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Ewha Law Journal*, Vol. 28, No. 4, pp. 217-238.
- [4] Kang, S.-W. (2015).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in safet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tendency and task.”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8, No. 2, pp. 1-24.
- [5] Kim, W.-B., Choi, Y.-W, Hong, Y.-J, Yoon, D.-K. (2022).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disaster research trends using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8, No. 4, pp. 908-921.
- [6] Lee, B.-R. (2020). “Research trends on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nalysis of domestic journal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99-122.
- [7] Lee, B.-R., Han, J.-H. (202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daycare-center directors: Focusing on academic papers from 2012-2023.”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8, No. 3, pp. 25-47.
- [8] Nam, J.-Y., Jeong, K.-O., Chung, C.-S. (2023).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military education: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papers since 2000.”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9, No. 3, pp. 471-480.
- [9] Park, S.-H., Lee, H.-E. (202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ol. 24, No. 1, pp. 89-109.
- [10] Patton, M.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Sage Publications, Inc, California, CA.
- [11] Yun, S.-J. (2021).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endency on the soldiers’ adaptation program for their military lif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6, No. 1, pp. 119-142.